

# 건축하는 디자이너 디터 램스

Dieter Rams, Designer als Architekt

글. 김성환\_ Kim, Sunghwan

KSP Jürgen Engel Architekten GmbH (München)

애플이 지난 2011년 당시 새로운 자사 제품을 발표하면서 외친 한마디가 있다.

“디자인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제품을 만드는 가장 즉각적이고 가장 명백함을 규정 짓는 방법이다”

이 말을 한 애플의 영국 출신 디자인 수석 부사장인 조니 아이브(Sir Jonathan Paul Jony Ive)는 스티브 잡스(Steve Jobs)의 디자인 철학과 신념을 철저히 받아들이고 신임을 얻어 잡스로부터 모든 디자인 단계를 일임받는다. 단순한 예로, 조니가 아이맥을 디자인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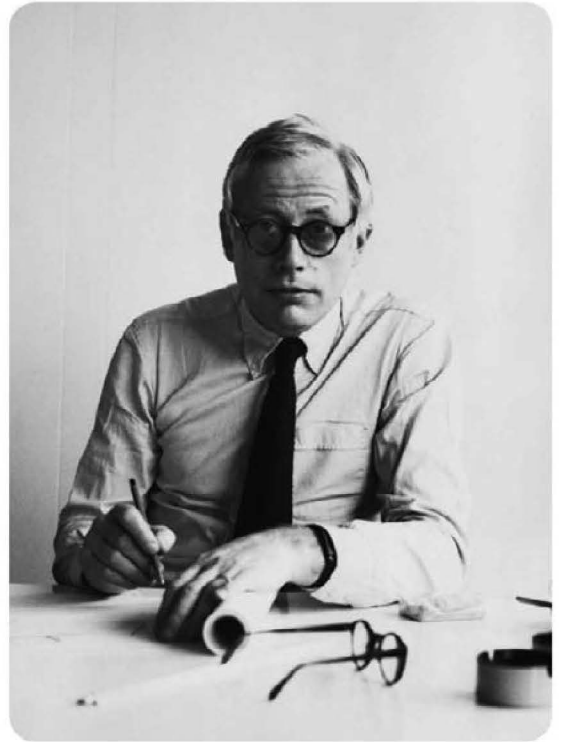
총괄할 당시, “아이맥에 관한 쟁점의 핵심은 칩의 속도나 시장 점유율이 아니다. 대신 우리는 소비자들이 이 제품을 어떻게 느끼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감동을 받을까에 대한 궁금증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회의에 참석한 모든 이에게 감정적인 교류를 이끌어내고자 했다. 이어 그는 기존 업계가 가지고 있는 제품들에 대해 지적을 한다. 대중에게 많은 것을 끌어 내기 위해 불필요한 기능이 혼재된 있는 제품을 판매하여 사용 시 편의성의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사용자가 느낄 수 있는 편의성을 예측하고, 그것이 디자인에 철저히 스며들어 있는 것이란 무



Apple I pod 2001 (Getty)



**Braun T3 Transistor Radio**  
1958



Braun T3 Transistor Radio(1958) und Dieter Rams

엇일까? 이러한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조니는 독일 산업디자이너 디터 램스(Dieter Rams)를 여기서 언급한다.

디터람스는 사실 애플과는 인연이 없는 존재이다. 1932년 독일 프랑크푸르트(Frankfurt am Main) 근처에서 비스바덴(Wiesbaden)에서 교사인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다. 어렸을 적부터 목수였던 할아버지 밑에서 보냈던 시간이 많았다. 갖은 도구와 연장을 당시부터 손에 익힌 덕분에 비스바덴 예술대학으로 1948년 진학한다. 하지만 이 곳에서 학업을 중단하고, 근처 공방에서 책상을 만들기에 전념한다. 단순한 공방 견습생으로 일하는 것이 아닌, 학업의 목표를 바꾼 것이었다. 교육의 성격상 이론 중심이던 대학 강의에 회의론을 느끼고, 자신이 어렸을 적 둘러싸인 환경을 기억하고 기술을 연마할 수 있는 선택을 하였다. 이후 1953년, 비스바덴 예술대학에서 건축 석사 과정을 자신의 가진 지식과 경험으로 우수한 성적에 마무리한다. 졸업 이후 프랑크푸르트에 위치한 오토 아펠(Otto Apel) 사무소에서 실무를 쌓는다. 2년 뒤 우리가 아는 브라운(Braun) 사의 건축사이자, 인테리어 디자



Dieter Rams

이너로서 자신의 경력을 이어나가기 시작한다. 이후, 1961년 브라운 사의 수석 디자이너로 1995년까지 역임한다.

건축사를 기본으로 커리어를 시작한, 그리고 목수를 할아버지로 둔 청년으로 20대를 보낸 디터람스가 조니에게 어떠한 영감을 주었던 것일까? 1947년 비스바덴에서 건축공부를 시작하였을 당시, 디터람스는 인테리어에 큰 관심을 두고 있었다. 건축에도 굉장한 열정을 갖고 있었지만 인테리어에 관련된 작업을 하면서 그의 역량은 더욱 크게 발휘되었다고 스스로 회고한다. 시기적으로도 2차 세계 대전 후 재건되는 독일의 사회상과 맞물려 그에게는 관심과 열정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맞이한다. 브라운 사와의 인연이 그 첫걸음 이었다. 사실 친구 등에 떠밀려 지원한 포트폴리오에는 브라운 형제가 관심 가질 다양한 작업들이 가득했고, 인테리어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그에게 브라운 사는 건축과 산업디자인의 연결 고리를 지속적으로 지탱하는 환경이 되었다.

브라운사에서 일하기전 2년여의 시간을 오토 아펠과 스킨모어(현재의 SOM)에서 일했던 그는, 그 디테일에 대한 탐구를 자신의 가장 큰 재산으로 여기고 있다. 모든 디테일에서 명쾌한 답을 그려냈던 그는 이후 이 작업이 브라운사에서 모든 산업 디자인 요소에 적용시켰다. 산업디자인에서는 생산품의 모든 것이 모델링되고, 상세화 되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근본이 흔들릴 수 밖에 없었다. 여기서 디터 람스는 스스로 자신이 무엇을 만들고 어떻게 만들 것인지 신중하게 생각했어야 했다. 즉 미리 예측할 수 있었어야 했다. 미리 예측을 못하면 이후 지불해야 할 모든 비용이 고스란히 회사 책임으로 돌아왔다. 이 프로세스를 그는 건축 사무소에서 2년이란 시간동안 경험하고 배웠던 것이다.

“Weniger, aber besser”

“적을수록 좋다”

이에 디터 람스는 미리 예측하고 또한 생산되는 제품이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한다. 오랜 시간 지속 될 수 있다는 것은 제품이 어떠한 시대적 양식이 되는 것이 아닌 나이를 먹지 않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그는 얘기한다. 이런 그가 조니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어떠한 생각을 하였을까?

다음호에서 디터람스의 디자인 철학이 계속 됩니다.